

힐러리, 美 민주당 대선후보 사실상 확정

동북부 경선 4개주 승리

샌더스 추격권 벗어나

공화당 트럼프, 2·3위 연대 변수

미국 대선 경선 민주당 선두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레이스의 중반부로 향하는 길목인 26일(현지시간) 동북부 경선 5개 주 중 4개 주에서 대승을 거뒀다.

8년 전 첫 도전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던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 이날 큰 승리로 사실상 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며 대권 재수 끝에 본선형 티켓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50분 현재 총 462명의 대의원이 걸린 5개 주 경선 승부에서 대의원이 210명으로 가장 많은 대형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압승한 것을 비롯해 메릴랜드(118명)와 코네티컷(70명), 델라웨어(31명) 등 4개 주의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은 로드아일랜드(33명) 1곳에서 승리하는 데 그치며 이날 경선 전에서 참패했다. 이로써 클린턴 전 장관이 지금까지 확보한 대의원 수는 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2383명)의 9부 능선에 도달하는 2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샌더스 의원의 추격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공식으로 오는 6월 14일까지 이어지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7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에서 무난히 당 대선후보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완승의 여세를 몰아 사실상 대선 본선 행보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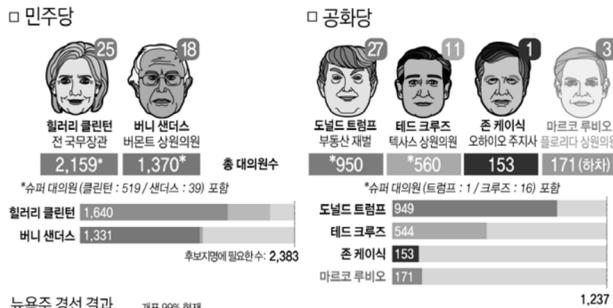
클린턴 전 장관은 퍼스트레이디와 국무장관, 2차례의 상원의원, 대권 주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선론으로 레이스를 시작했지만 첫 대결인 아이오와 주에서 가까스로 승리하고 이어진 뉴햄프셔 주에서 충격적 패배를 맞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히스패닉과 흑인, 여성 등 마이너리티의 지지를 기반으로 슈퍼화요일과 미니 슈퍼화요일, 뉴욕 결선 등 핵심 승부처에서 완승하며 줄곧 경선전을 리드하며 지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혁명과 소득불평등 해소, 월가 타파를 외치며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켜온 경쟁자인 샌더스 의원은 여전히

미 대선 경선 각주자 후보 대의원 수

27일 오전 2시(현지시간) 현재



뉴욕주 경선 결과

후보	득표율	대의원 수
힐러리 클린턴	51.7%	26
버니 샌더스	46.5%	26
도널드 트럼프	57.7%	27
테드 크루즈	11.7%	11
존 케시시	11.7%	11
마르크 루비오	28.5%	3

자료/뉴욕타임스 등 외신 종합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경선 레이스를 완주하고 7월 전당대회 대결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의 경우, 역시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총 172명의 대의원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메릴랜드, 코네티컷, 로드 아일랜드, 델라웨어 등 5개 주에서 모두 큰 승리를 거두며 자력으로 당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길에 성큼 다가갔다.

누적 대의원도 기존 845명에서 최소 920명 안팎으로 크게 늘리며 매직넘버인 1237명의 8부 능선에 바라보게 됐다. 다만 그가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데 필요한 매직넘버인 대의원 과반(1237명)에는 아직 도달하

지 못해 경선 레이스는 오는 6월 7일까지 마지막 경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특히 2, 3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과 존 케시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트럼프의 대선 후보 지명을 저지하기 위한 반트럼프 연대를 구축한 상태여서 그 파괴력이 주목된다.

트럼프가 레이스만으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면 7월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무난히 대선 후보가 되겠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 투표가 거듭돼 트럼프가 후보 지명에 실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원전 사고 다시는 안돼!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더불어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원전 사고의 피해를 경고하기 위해 플래시몹 참가자 50명이 '체르노빌, 후쿠시마, 두 번 다시는 안돼!'라고 쓰인 현수막 밑 바닥에 누워있다.

연비 조작 미쓰비시자동차 회장 사임할 듯

日 정부, 사내 조사보고서 반려



고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사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비 실험 조작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마스코 오사무(松尾 修·67·사진)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아이카와 데쓰오(相川哲郎) 사장이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27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마스코 회장은 이미 일부 계열 판매회사 및 부품업체에는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코 회장은 연비 조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오는 7월께 조사보고서를 완성하면 사임할 가능성이 크다.

마스코 회장은 미쓰비시상사 출신으로 2005년 미쓰비시자동차 상무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11년째 경영을 진두지휘해왔다.

마스코 회장이 사퇴 의사를 굳힘에 따라 앞으로 연비조작 조사 등의 업무는 아이카와 사장이 주도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이카와 사장이 연비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

고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사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국토교통성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회사의 존속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의 최대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발생한 리콜 정보 은폐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초대형 악재가 발생하며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에서도 경영진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 결국 사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성은 지난 26일 미쓰비시자동차가 제출한 사내 조사 보고서에 대해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전자종이에 대한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달 11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北, 36년만의 노동당대회 내달 6일 개최... '김정은 시대' 공식 선언

외신기자 취재 허용

36년만 열리는 북한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6일 평양에서 시작된다.

북한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결정서에서 "백두산 대국의 위력이 최고의 경지에서 과시되고 온 나라 천만군민의 총정의 70일 전투가 결속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격동적 시기에 당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당지도기관과 당 제7차 대회 대표자 선거

를 위한 당당대표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7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당대회이자,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개최되는 정치 행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시절 단 한 차례도 노동당 당대회를 열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30일 36년 만의 7차 당 대회를 올해 5월 초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각급 기관별로 대표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당 대회 대표로 추대하는 한편 당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 및 명칭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왔

다.

북한은 이번 발표에 따라 6일부터 4~5일 안팎의 일정으로 당 대회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중 북한대사관은 26일 베이징 주재 외신기자들에게 당 대회 취재를 위한 비자를 신청하라고 통지하면서 취재일정으로 3~10일 또는 5~12일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당 대회는 북쪽에서도 발표했듯이 지난 사업들의 총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업 그리고 조직문제 등을 모두 다룰 예정으로 보인다"며 "4~5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회는 ▲중앙위원회·당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분석) ▲당의 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충 ▲당의 노선과 정책·전략·전술의 기본문제 토의 결정 ▲당 총비서 추대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 등을 진행한다.

북한은 1946년 8월 제1차 대회를 시작으로 1948년, 1956년, 1961년, 1970년, 1980년까지 모두 여섯 차례 당대회를 열었다. 가장 최근 열린 제6차 대회에서는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 공식화,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략 목표 제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제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었다.

중국 "소비가 불황의 답" 실행지침 발표

중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실행지침을 마련했다.

27일 중국경제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26개 부처는 공동으로 소비 확대를 통해 산업 구조개편과 신성장 동력을 촉진하기 위한 10가지 실행지침을 발표했다.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 서비스업으로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산적한 수급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비구조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농촌의 상품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물류체널을 대폭 증설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물류와 택배의 협력체계 구축, 면세점 설립 범위 확대, 물류비용 절감, 우수상품의 3, 4선 도시진입 촉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대 농촌지역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촌 재계발 및 이주, 농민 탈빈곤과 함께 취약 계층 개조, 향촌도로 건설, 농촌 전력망 고도화, 상수도 공급, 전원휴양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